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ISSUE

경제중앙

경제일지

경제지표

특별

['13.10.16] 충남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 윤창현씨 선임

- 16일 이사회서 결정...산업부 장관 승인 후 11월 1일 취임 -
- 충남도는 16일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종합지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재)충남테크노파크 제64차 이사회를 열고, 제8대 원장으로 윤창현 씨를 선출함
 - 신임 윤 원장은 보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미국 럿거스대학(Rutgers University)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음
 - 이후 한국기계연구소 기계공학연구부장, 과학기술처 기계연구조정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재)송도테크노파크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초빙연구원 등을 역임
 - 신임 윤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11월 1일 취임식을 가진 뒤 3년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감

['13.10.20] 충남도 일자리박람회 141명 현장채용

- 대한전선 등 40여개 업체·일반구직자 등 800여명 참가 -
- 충남도가 도내 유치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일자리박람회에 800여명의 구직자가 몰려 141명이 현장에서 채용됨
 - 도는 17일 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13 충청남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힘
 - 대한전선을 비롯한 도내 유치기업 40여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141명이 현장에서 채용됐으며 업체별로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
 - 이밖에 박람회에서는 현장면접뿐만 아니라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메이크업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 류순구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도내 유치기업에 대한 A/S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앞으로도 유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함
 - 한편,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 총 5개 유관기관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함

['13.10.22]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상담행사

- 22일 예산서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요령 등 교육 -
- 충남도는 22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도내 노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예산군과 공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상담 행사'를 개최
 - 이번 금융상담 행사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예방대책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 이번 행사에서는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요령 강연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분야별 민원상담 및 신청접수 ▲유사금융 및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시됨
 - 이와 함께 이날 오전에는 예산군 삼교읍 소재 삼교시장에서 금융사랑방 버스를 이용한 서민금융 상담행사도 함께 진행됨. 금융사랑방 버스는 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 3월에도 공주산성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운영한 바 있음
 - 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및 신종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처벌 및 즉각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앞으로 타 시·군에서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함
 - 한편, 도는 올해 캠프와 공동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 설명회를 3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캠프 내포지소에 서민금융지원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충남서민금융지원센터(천안시청 소재) 상담창구를 늘리는 등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공동협력하고 있음

['13.10.23] '신재생에너지' 국비확보 연속 1위 기염

- 충남도 내년도 국비 30억 1900만원 확보 ... 전국 14.4% 규모 -
- 충남도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억 1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힘
 - 이는 국내 전체사업비 210억원의 14.4%에 달하는 규모로, 충남도는 2년 연속으로 사업비를 가장 많이 확보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린 충남' 실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에너지 수급안정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

-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차 서면심사와 7월 공개평가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충남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둬
- 도의 내년도 주요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3개 사업(3곳)과 공공청사 등 일반시설 15개 사업(23곳) 등 모두 18개의 사업(26곳)으로, 태양광 1106.5kW, 태양열 96m², 지열 231RT를 설치할 예정
- 도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간 원유수입량 3228배럴 대체효과는 물론, 이산화탄소 1142tCO₂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도 관계자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9% 줄어든 수치이지만 정부의 전체사업비가 올해 370억원에서 내년에는 210억원으로 4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린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13.10.27] 충남 수출액 누계 478억5800만불 '순항'

- 1~9월 수출액 올해 목표대비 75% ... 국가 무역수지 흑자 견인 -
- o 최근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충남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액이 478억 달러를 넘어서 올해 도내 수출 전망(630억 달러) 달성에 파란불이 켜짐
- 24일 도에 따르면, 9월 추석연휴의 조업일수(2일) 감소에도 충남지역의 수출과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내 올 9월까지 총 수출액은 478억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0억8300만 달러에 비해 6.2%(27억75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
-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4133억4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4081억100만 달러)에 비해 1.3%(52억4800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쳐 충남지역 수출이 전국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남
- 또 도내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254억600만 달러보다 0.4%(9300만 달러) 감소한 253억 1300만 달러로 전국 수입액(3823억4100만 달러)의 6.6%를 차지
- 이로 인한 도내 무역수지 흑자액은 지난 같은 기간 196억7700만 달러 보다 14.6%(28억 6800만달러)가 늘어난 225억4500만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310억 800만 달러)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팔목할 만한 성과로는 연초에 부진했던 컴퓨터(8월 30.0%→9월 81.8%)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되어 반도체(5.8%), 전자응용기기(24.4%)와 더불어 수출 고공행진을 이끌었음

- 반면, 평판디스플레이는 LCD패널 수요 위축에 따라 중국이 11.3% 감소했고, 슬로바키아 지역도 21.8% 감소, 석유제품은 원유 수입단가 불안정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
- 품목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반도체 124억 4800만 달러(25.2% 증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82억 1800만 달러(1.8% 감소) ▲전자응용기기 41억 9000만 달러(24.4% 증가) ▲석유제품 38억7000만 달러(12.1% 감소) ▲석유화학중간원료 26억6300만 달러(84.1% 증가) ▲컴퓨터 19억6100만 달러(10.4% 증가) ▲자동차부품 18억7600만 달러(14.1% 증가) 순으로 나타남
- 주력 수출국가로는 중국(14.0%), 미국(18.6%), 대만(19.1%)은 증가한 반면,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의 각각 7.8%, 14.7%, 12.9% 감소세를 보임
- 특히 대일(對日) 9월 한달 수출은 8개월여 만에 3.6% 증가해 수출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최근 3년간 3/4분기 수출비중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국가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223억3100만 달러로 14.0%의 증가율을 보였고 ▲홍콩이 58억3100만 달러(7.8% 감소) ▲미국 38억600만 달러(18.6% 증가) ▲대만 23억6700만 달러(19.1% 증가) ▲일본 22억 9900만 달러(14.7% 감소), ▲베트남 18억 6700만 달러(15.2% 증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최근 3분기까지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4분기 수출은 세계경기의 불안정 및 신흥국의 외환시장 불안정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환경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등 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함

['13.10.27] 26일 충남 노사민정 화합의 한마당 행사

- 천안시민문화회관서 개최 ...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등 기대 -
- 충남도는 26일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분관에서 도내 노동계와 기업계, 시민단체, 행정분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충청남도 노사민정 한마당행사’를 개최
- 충남도가 후원하고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의장 정근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 공식행사, 가요제, 식후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
- 박정현 정부부지사, 주평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등 축하내빈과 도내 노사민정 관계자 및 가족 1000여명 등 참석자 전원은 이날 행사를 통해 노사민정 화합 및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의 결의를 다짐

- 박정현 정부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민생대책이자 효과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은 일자리창출”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하나가 되어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함

['13.10.28] 세계경기침체 ‘가뭄’속 1억5천만\$ 유치 ‘단비’

- 안희정 지사 유럽방문 마무리 ... 獨린데·컨티넨탈과 투자협약 -
- 내포신도시 지속가능발전 방안·3농혁신 모범사례 등도 살펴 -
- 외자유치 등을 위해 유럽 방문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5일 독일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 방문을 끝으로 4박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함. 안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1억5000만 달러의 외자유치를 최종 성사시킴
 - 또 세계적인 녹색도시를 찾아 내포신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고민하고, 덴마크 세계 최대 육류 수출업체에서는 운영 노하우를 듣고 3농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
- **글로벌 기업과 잇따라 투자협약**=세계 경기 장기 침체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불러왔으며, 이 여파는 매년 전국에서 외자유치 선두권을 유지해 온 충남도도 피할 수 없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 컨티넨탈(Continental)과 린데(Linde)로부터 유치한 1억5000만 달러의 외자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는 평가
 - 안 지사는 지난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마커스 하이네만(Marcus Heinemann) 컨티넨탈(Continental) 부사장, 로버트 리(Robert H. Lee) SK 컨티넨탈 이모션(Continental E-motion) 사장 등과 2363억원(외국인 직접투자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
 - 하루 전인 24일에는 독일 뮌헨 린데(Linde) 본사에서 이 시장, 라이너 솔리커(Rainer Schlicher) 린데 글로벌 사업부문 사장과 900억원(외국인 투자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
 - 자동차 부품 기업인 컨티넨탈은 연매출 327억 유로(약 47조5000억원)의 글로벌 기업이며, 산업용·특수가스 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린데는 연매출 153억 유로(약 22조2105원)를 기록
 - 이들 기업은 서산 대산화학단지외 오토밸리 내에 각각 생산공장을 설립하며, 향후 5년간 2조6250억원의 매출과 고용366명, 생산 유발 2조5750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3000억원, 수출 1조8750억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내포신도시·국내 축산업 발전 모색**=외자유치에 앞서 안 지사는 덴마크

외레스타드와 스웨덴 말뫼시를 잇따라 방문, 두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살펴봄

- 외레스타드는 덴마크 대표 녹색도시로 발돋움 중이며, 말뫼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 2007년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임
- 안 지사는 55%가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외레스타드의 정책을 듣고, 8층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된 ‘8하우스’ 등을 찾았음
- 말뫼에서는 건물 자체에서 풍력과 태양열,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활용하는 아파트(터닝 토르소)와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한 바이오 가스를 모든 버스가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관심 있게 살펴봄
- 세계 최대 육류 수출업체인 덴마크 대니쉬 크라운 협동조합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인 켈드 요한센(Kjeld Johannesen)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도축·가공시설 현장을 둘러보며 국내 축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
-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덴마크와 대니쉬 크라운의 축산물 유통체계 ▲협동조합 성공 요인 ▲수익 구조와 배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 ▲가축사육제한 규정 ▲가축분뇨 처리방법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 ▲도축검사 제도 ▲적정 사육두수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폭넓게 들음
- 25일 마지막 방문지로 택한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에서는 하루 2만여 관광객이 찾는 소니센터 등을 찾아 도심 낙후지역 재개발 현황을 살핌
- 도 관계자는 “안 지사의 이번 유럽 방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독일 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개발 현장과 3농혁신 모범사례 등을 보고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함

['13.10.29] ‘3소비운동 동참으로 물가안정 도모’

- 29일 교통연수원서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 -
- 충남도는 29일 교통연수원에서 소비자단체 회원과 주부, 공무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를 개최
- 도에 따르면 이번 다짐대회는 착한가격·할인판매·옥외가격표시업소의 적극 이용을 통한 소비자문제의 자주적 해결 능력 제고와 소비자 복지 지향적 소비생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됨
-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민간 6명, 공무원 5명) 수여식과 조춘자 전국주부교실충남도 지부회장의 대회사,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의 격려사, 결의문 낭독, 우수사례 발표, 황인태 국제평화연구소장의 특강 순으로 진행됨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향상,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 노력한 주부교실과 유공자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함
- 이날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착한가격·옥외가격표시업소 이용하기 ▲할인판매·직거래장터 이용하기 ▲일시 급등품목을 유사 품목으로 대체소비하기 등 3소비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3소비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함
 - 도 관계자는 “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기인한 가격결정 구조 현실에서 물가안정은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3소비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함

['13.11.3] 충남 우수상품 홍콩에서 날개 달았다

- 10월 30~31일 홍콩 현지 전시상담회서 100만달러 수출계약 -
-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최근 홍콩에서 실시한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에서 4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100만달러의 수출 계약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힘
- 도에 따르면 이번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는 도내 우수 중소 수출기업 32개사와 홍콩 및 중국 바이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홍콩 현지에서 진행
- 특히 이번 전시상담회에는 섬유, 미용패션, 전기전자,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의 도내 우수 중소 수출기업 제품이 전시돼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지역 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
- 상담회 결과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벌여 도내 23개 업체에서 4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 현장판매 4만500달러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
- 특히 참가기업 중 보령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식품 생산업체인 A사는 홍콩의 식품전문 유통회사인 W사와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
- 또 홍성에 위치한 한과 제조기업인 B사는 현지 판매전문기업인 S사와 연간 5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아산에 위치한 화장품 생산업체 C사는 중국 S사 등 2개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화장품 납품계약을 맺음
- 전시상담회 개최사에서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홍콩은 한국의 제4위 수출국이지만 충남의 제2위 수출국으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향후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이번 개막식에는 조용천 홍콩총영사를 비롯해 홍콩투자청 빅토리아 탕(Victoria TANG)

- 부청장과 홍콩중화총상회 프랭키 우(Frankie WU) 부회장, 홍콩한인상공회 김범수 회장 등 홍콩정부와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충남의 우수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
- 도 관계자는 “홍콩은 연간 300여개의 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 곳으로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이라며 “특히 홍콩은 중국과 성향이 전혀 다른 선진시장으로 상대적으로 시장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홍콩시장을 진출하는 기업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함
- 한편, 도는 오는 28일 국내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13.11.4] 허베이성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중국 등 방문 송석두 부지사, 친취융부성장 만나 내년 행사 논의 -
- 충남도는 중국 허베이성과 내년 자매결연 체결 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추진함
 - 홍콩 우수상품전과 고려인삼 세계투어 베트남전 참가, 교류단체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홍콩, 베트남, 중국을 방문한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는 4일 중국 허베이성에서 친취융(秦博勇) 부성장을 만나 2014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논의
 -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는 ‘(가칭)충청남도의 날’을 마련하고, ▲기념식 ▲충남 우수상품판매전 ▲문화예술 상호 공연 ▲충남도-허베이성 지역발전 포럼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 또 청소년 테마여행과 공무원 상호 단기연수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
 - 이 중 기념식은 자매결연 20주년을 축하하고 상생과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자리로, 행정·경제·학술 등에 대한 교류협정 체결과 도지사-성장 좌담 등을 개최한다는 구상
 - 송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7일 도의 지원으로 허베이성 스자좡 중마오하이웨호텔에서 열린 무역사절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함
 - 송 부지사는 이어 장쑤성으로 이동, 5일 쉬쥘룽(許津榮)부성장을 만나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고, 6일 제2회 중국 남경 국제 환보산업박람회 참가를 끝으로 8박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함

['13.11.4] '가스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부터 시작'

- 4일 홍성서 가스안전결의대회 ... 유공자 16명 표창·감사패 -
- 충남도는 4일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박정현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가스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가스안전결의대회'를 개최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가스안전 포스터 전시, 동영상 홍보물 상영 등도 열림
 - 유공자 표창에서는 상록에너지 김기범(49)씨 등 4명이 도지사상을, 서해도시가스 양승찬(37)씨 등 12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한국 LP가스산업협회, 한국LP가스 판매협회 회장 표창 및 감사패를 받음
 -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실시공 추방 및 가스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스 사고 방지 ▲가스시설 관리·점검 철저 ▲가스사용자 계도 및 홍보 ▲가스의 안정적 공급 등을 다짐함
 - 박정현 부지사는 “가스 관련 기관 및 가스업계 관계자, 소비자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와 자율점검 생활화를 통해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
 - 한편, 도내 가스업소는 2,514개이며 최근 3년간 가스사고는 총 13건이 발생해 사망자 없이 1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

['13.11.5] '세계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 위상 알려

- CVCE 2013 전문대서 개막식 ... 국내·외 기업 대표 등 300명 참석 -
-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2013 디스플레이 전시회 및 컨퍼런스(CVCE·Crystal Valley Conference & Exhibition)'가 5일 전문대 아산 캠퍼스에서 개막
 -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디스플레이협력단이 주관하는 CVCE2013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유관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행사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함
 - 이날 개막식은 안희정 지사와, 도의원, 국내·외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 기조연설 등의 순으로 진행
 -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디스플레이는 ‘세상을 보는 창’이자 정보화시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필수 도구로, 관련 기술은 ‘경량화·슬림화·대형화→포터블화·초경량화→가상현실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양산 기술 축적, 생산비용

확보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세계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함

- 안 지사는 “특히 충남에서의 디스플레이는 전국 450개 업체 중 220개 업체가 입지해 연간 117억 달러의 수출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황금 산업”이라며 “이번 행사는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세계적 디스플레이 메카로써 충남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과 상생발전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안 지사는 이어 “충남도는 디스플레이 산업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를 육성, 새로운 디스플레이 산업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베이스캠프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7일까지 사흘간 ‘LCD·OLED·LED·차세대디스플레이·인쇄전자·태양광·2차전지·TSP’ 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00여 기업에서 150여 부스를 운영하고, 디스플레이 비즈니스 컨퍼런스 및 산업박람회, 채용 및 수출상담회, PT, 스마트폰 영상 경진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역대 최고 규모로 치러졌음
- 개막식 기조강연은 김학선 삼성디스플레이(주) 연구소장이 ‘상상 너머의 디스플레이 (Display Beyond Imagination)’를 주제로 진행
- 또 이충훈 유비산업리서치 대표가 ‘OLED 기술 동향 및 산업동향’을, 박연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센터장이 ‘차세대 터치 기술 개발 및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는 등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가 강사로 나섬
-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비즈니스 컨퍼런스와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25편과 70편의 논문이 각각 발표됨
- 부대행사로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대학생 PT 경진대회, 스마트폰 경진대회, 디스플레이 전문 채용박람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짐
- 이 중 초·중·고·대학생 스마트폰 영상 경진대회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며,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됨

['13.11.10] 구마모토현에 30년 우정의 나무 심다

- 일본 방문 안희정 지사,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수 가져 -
-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 구마모토현을 방문한 안희정 지사는 9일 운젠아마쿠사 국립공원에서 기념식수를 가짐
- 기념식수에는 충남 대표로 안 지사와 오웅준 대전충남한일친선교류협회장 등 5명이, 구마모토현에서는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와 사토우 마사시 현의회 부의장 등 5명이 참여했으며, 도에서 모집한 구마모토 탐방단 70여명도 자리를 함께함

- 이날 기념식수 수종은 구마모토현의 나무로 지정된 녹나무와 가미아마쿠사시 나무인 소나무로, 30년 우정을 기념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 약속 의미를 담음
- 안 지사는 이어 가바시마 지사와 공원 내 ‘마스시마 올레길’을 걸으며 30년 교류 성과를 재확인하고, 양 도·현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함
- 한편 안 지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4~16일 가바시마 지사가 대규모 방문단을 꾸려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충남을 찾은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진행됨

['13.11.13] 도내 기업 ‘내고장 농축산물 소비’ 팔건어

- 13일 35개 기업 소비촉진 협약 ... 누적 구매효과 117억원 달해 -
- 충남도가 3농협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 참여 기업이 84개 기업으로 증가하는 등 정책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
-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도내 35개 기업 및 구내식당 위탁업체 13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을 체결
- 협약 참여 기업은 천안시 26개 기업, 보령시 3개 기업, 서산시 3개 기업, 부여군 1개 기업, 홍성군 2개 기업과 구내식당 13개 위탁업체 등임
- 특히 이번 협약에는 삼성디스플레이㈜천안사업장, 삼성SDI 등의 대기업과 삼성에버랜드, JSG, 아워홈 등 식품 전문업체가 동참해 지역 농·축산물 구매 효과가 어느 때 보다도 클 전망
- 도는 이번 협약 체결로 쌀 845t, 육류 47t, 양념류 32t, 기타(김치·채소 등) 204t 등 36억 원의 지역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봄
- 조영석 삼성디스플레이㈜천안사업장 단지기획그룹장은 “기업이 지역의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생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며 “농촌사랑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기를 기대하며 협약내용이 성실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이번 협약으로 지금까지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을 체결한 도내 기업은 84개로 늘어 쌀 3454t, 육류 153t, 양념류 96t, 기타(김치·채소 등) 324t 등 총 4027t 117억원의 구매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
- 안희정 지사는 협약식에서 “오늘의 협약식이 새로운 농업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기업의 농·축산물 소비촉진 이행력이 확보돼 지역농산물 선순환제 정착 및 기업과 농촌의 상생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류순구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 12월에 20여개 기업 대상으로 추가협약을 체결해 총 100여개 기업이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함

['13.11.14] 지역경제의 근간, 더 튼튼히 세운다

- ‘기업·민생 탐방’ 안희정 지사, 중소·중견기업 정책토론회 가져 -
- 지방 정부 차원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 강구 -
- 서민경제 현장을 살피고, 각 주체와의 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모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기업·민생현장 탐방’을 실시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4일 ‘중소·중견기업CEO 정책토론회’를 가졌음
 -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시·군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도의 기업 지원 정책 설명과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특강,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 인근 기업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
 -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발적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우리 경제의 근간과도 같다”며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기술과 자금, 인력 등 구조적 취약점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 그러면서 안 지사는 “이에 따라 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관계가 아닌 산업을 이끄는 파트너로써 공정거래와 기회 균등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3월 전국 최초로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금융과 국내외 판로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안 지사는 이어 “도는 21세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양적·질적 성장의 조화를 위해 생산과 소득, 소비가 선순환 하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임
 - 도는 기업 지원 시책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5000억원 ▲국내·외 판로 지원 28개 사업 2033업체 ▲유망중소기업 30개 업체 내외 육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SOS충남넷 운영 ▲품질경영대회 및 기업인대상 시상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수요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 등을 추진 중
 -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이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적 지원은 유지하면서 성장 단계별 연착륙(sliding down)을 유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
 - 주요 대책 내용으로는 ▲매출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제한적 허용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총 7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2.95%에서 5%수준으로 확대 ▲가업 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체계적 수립 시행을 위한 중견기업 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 등이 있음

- 한편 안 지사는 앞선 지난 9월 3일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4일에는 전통시장 상인 등 150여명과 전통시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음

['13.11.15] 충남산업디자인대전 대상 '도토리 소곡주'

- 정소희·이경아씨 작품 ... 이창선씨 일반창작부문 대상 수상 -
- 충남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27회 충남산업디자인 대전에서 대덕대학교 정소희·이경아씨의 '도토리 소곡주'와 백석대학교 이창선씨의 '프리미어리그 캘린더'가 각각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 도가 주최하고 충남산업디자인협회(회장 이승주)가 주관하는 충남산업디자인 대전은 자체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기업지원디자인 부문과 일반창작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 이번 공모전에서 기업지원디자인 부문 대상은 전통주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징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각화한 대덕대학교 정소희·이경아씨의 '도토리 소곡주' 패키지가 차지함
- 일반창작디자인 부문 대상은 영국축구 각 구단의 특징을 모아 일러스트 표현 기법을 섬세하게 표현한 백석대학교 이창선씨의 '프리미어리그 캘린더'가 선정됨
- 이번 대회에는 지난 3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해 기업지원디자인 부문에 254점, 일반창작디자인 부문에 193점이 접수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침
- 심사 결과 대상 2점을 비롯해 최우수상 4점, 우수상 4점, 특별상 13점, 특선 181점, 입선 181점이 입상의 영예를 안음
-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5일 논산문예회관에서 열리며 입상작품은 16일부터 20일까지 논산문예회관 제1·2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됨
-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예년에 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섬세한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며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가 산업현장에 상용화되어 기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주요 민간 기관·단체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중국 '신형'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전망
 -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
 - 유로존 위기 진단 및 당면과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체험 혁신 전략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산층의 변화와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
 - 2014년 주택시장 전망과 시사점
 - OECD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 2014년 미국 경제 회복 가능성 점검
 -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린 스타트업, 벤처 기업만의 전유물 아니다.
 - 오프라인 유통, 쇼루밍족 쫓지 말고 끌어 안아야
 - 중국 3중전회, '점진적 개혁 통한 안정적 성장' 노선 채택
 - 노후 대비 부족한 고령층, 소비할 여력이 없다.
 - 빨라진 원화강세, 한국경제 위협한다.
 - 기술융합 트렌드 활용한 이노베이터로의 도약
 - 중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관념
 - 수익 회복 뚜렷한 일본기업의 부활전략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추진 현황과 평가
 - 주요 신흥국의 성장 감속 요인과 평가
 - 시장정보를 이용한 은행부문 안정성 평가
 - 금융위기 이후 미국 실업률의 변동요인 분석
 - CDS 스프레드를 활용한 개별은행의 미시정보에 내재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